

♣ 녹취 자료 ♣

|     |  |
|-----|--|
| 분류  | 핵심훈련   |
| 제목  | RUTC 시대의 헌신과 응답(20) - 전도자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증인의 시작 |
| 성경  | 사도행전 2:14-21                                   |
| 일시  | 2009년 6월 27일                                   |
| 장소  | 서울 예원 교회                                       |
| 강사  |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 주제어 |  |

◆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4-21)

-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되라
-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 요약 자료 ♣

◆서론 -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 1.갈대야의 재난을 이기게 한 것은 전도의 축복이었습니다(창 3:15).
- 2.출애굽의 축복의 주역이 전도자입니다(출3:18).
- 3.출바벨론의 축복의 비밀이 전도입니다(사7:14).
- 4.출로마의 열쇠가 전도입니다(마16:16).
- 5.세계사의 중심이 전도자입니다(마24:14).

▶ 지식인, 역사가, 정치인, 경제인이 모르는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이요 비밀입니다(행1:1-11).

◆본론 - 전도자는 전도의 시작을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1.중요한 핏박과 나의 문제, 언약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 (1)행1:1-11
- (2)행1:12-14
- (3)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이 속에 있습니다.

2.전도자의 분명한 비밀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 (1)행2:1
- (2)행2:2-6
- (3)행2:9-11, 13

3.전도자에게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 (1)속4:6
- (2)요엘2:28
- (3)행2:14-21

◆결론 - 결과는 사람이 상상 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행2:41)

(The end)

서론

▶행2:14-21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이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다. 성령 체험하고 난 그 현상이다.  
▶중직자들이 많이 서고 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또 예원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다. 또 앞으로 우리는 건축도 하고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저도 전도운동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나까 좀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 앞뒤사방이 꽉 막혀버렸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왔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제가 사실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뭘 깨달았는가 하나까, 다른 것은 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을 잘 몰랐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정시기도이다. 그리고 그때 한 게 정시예배이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감사를 했는데 무슨 뜻에서 감사를 했을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다. 그것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감옥에도 가고 핏박이 일어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제대로 지금 깨달은 것이다.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까, 빌3:1-20에 다 필요 없다고 했다. 이 정도로 고백했다.  
그리고 바울은 엡3:8에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 그 정도 복음이 아니라 말이다. 측량할 길이 없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이게 확실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저런 응답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가? 아브라함이 갈대야에서 떠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다. 아니 복음 깨닫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발부터 안 되어지면 전도자로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복음 깨닫는 순간 바벨론에서 나왔다. 복음 깨닫는 순간 로마를 정복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그랬을 뿐이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논란이 일어났다. 루터를 죽여라,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다. 그때에 무명의 학자 한 명이 나온 것이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 가운데 세 시간 반을 강의를 한 것이다. 원고 없이 했다. 강의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논란을 하니까 나가서 애길 한 것이다. 들은 사람이 충격 받은 것이다. 아니 저렇게 박식한 사람이 있느냐? 고대 문서, 도서 썩 다 인용하면서 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말이 맞다는 것이다. 이걸 세 시간 반을 강의한 사람이 있다. 누구인가? 요한 칼빈이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 요한 칼빈인데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다. 아니 27살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기독교에 관한 전체적인 교리 아닌가? 이걸 27살에 썼단 말이다. 그걸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신학자도 있다. 그분이 기독교 강요 제일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믿어지는 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닌데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다는 게 힘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1.핏박, 문제, 갈등- 전도의 시작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핏박, 문제, 갈등 등 많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쳐버린다.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도대체 이런 집안에서 이런 형님들하고 살 수 없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을 다 담아놨는데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느냐? 나는 도대체 하나님 믿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된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대부분 그런다. 나는 도대체 이런 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99%가 아니고 99.9%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들어간다. 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하고 들어간다. 알아들었는가? 그러면 멍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1)행1:1-11(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혹은 여기서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바라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답이다.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다 진다. 아니 내가 어쩌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으로 가는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보통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시려고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앙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 우리는 거기서 문제 왔는데 괜찮다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모든 저주를 이기는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의 시간표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걸 기다리던 말이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2) 행1:12-14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3) 최고 응답

▶이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최고 응답이 왔다. 이게 시작이다.

2.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것이 온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시작이다. 진도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

(1) 행2:1

▶행2:1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진짜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꾼다. 교회 언제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으면 된다. 얼마만큼 크게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지으면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계획이 없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계획 주시면 계획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닌 것 그제 별 것 아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된다.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있다.

▶부산에서 교회당을 옛날에 샀는데 거의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목사님 중도금을 처야 되는데 중도금을 못 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는 것이다. 계약금이 얼마인데? 계약금이 2억인데 2억을 날려야 됩니다. 20년 전에 2억이니까 크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날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중직자들이 열 받아서 목사님 그래도 이걸 날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날리는 거면 날리는 것이지 뭐. 그런데 안 날리고 중도금을 다 찾았다. 저는 확신했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있다. 지금은 이제 그 땅을 싹 다 샀다. 이제 길을 내야 되는데 길을 내려고 하니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롯데에서 와서 길을 내게 되었다. 부산에는 영도에 63빌딩보다 더 큰 백 몇 층의 빌딩을 짓는다. 건축은 시작되었다. 지공 바다 옆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올라서면 전체가 다 보이고 영도는 바로 앞에 내다보인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전체 땅을 샀다. 그러니까 가만있어도 응답이 온다. 내가 서울 와서도 그랬다. 우리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빌려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오게 되어있다.

(2) 행2:1-6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바람 같은, 불같은 역사로.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면 불같은 역사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은 진도자이니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이 뭘 너무 잘못해서 지금 굶어죽을 상태에 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굶어죽으면 된다. 아니 성령의 인도를 너무 못 받아서 내가 완전히 돈 한 푼도 없다. 그러면 가만있으면 된다. 어느 날 바람 같은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3) 행2:9-11, 15나라, 3천 제자

▶이랬더니 행2:9-11에 15나라의 사명자들이 모였다. 아니 어떤 일인지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게 순서이다. 가장 큰 순서는 어디냐?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교회 가보고 일을 해봐라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 문제를 역지로 아니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있다.

3. 증거

▶세 번째이다. 이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잡아야 된다.

(1) 욥2:28

▶오늘 베드로가 설명했다. 말씀을 전했다. 정확하게 욥2:28에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 욥4:6

▶정확하게 욥4:6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 의 신

으로 되느니라.

(3) 행2:14-21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전한 것이다. 쉬운가 어려운가? 이대로 딱 하면 된다. 이러면 응답이 오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아까 램넌트 집회가 2박3일로 줄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모이고 또 그 다음 날에 가서 파송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마지막 날 전체 모였을 때 하자 그 말이다. 마지막 날 밤에 문화 행사장에 모이고 난 뒤에 또 지역으로 가서 지역으로 파송예배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파송예배 드리고 끝나라 그 말이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대안 중학교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아주 엘리트들만 몇 명 뽑을 것이다. 사실상 중학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음가진 엘리트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놓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면 손해보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 가면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몇 명만 모집해서 한 세 가지만 해보려고 한다. 영어 잘하는 선생님을 데려다 놓고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학습 중 중요한 것을 미루지 말고 속도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공부는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마치는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공부할 장소, 교사 싹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조금 힘들 것이다. 일단 공부 잘하는 아이만 모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신청서 내지 말기 바란다. 제대로 지금 우리가 엘리트 교육을 응답 따라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러서 집중 잘 나오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진도, 지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그 다음 것을 할 것이다.

▶삶- 요셉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1) 기도 시간(빌1:9-10, 계획)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삶 속에서 기도시간을 정하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꼭 하실 때 정시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빌1:9-10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아주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기도가 바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뛰어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러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있다.

(2) 일- 공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매일 공부하라.

(3) 말씀- 증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은 꼭 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키가 된다? 여러분 공부할 때 하라는 키가 뭐냐? 여러분이 사찰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최고 좋은 사찰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 간사를 하더라도 제일 좋은 간사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붙잡힌다.

(4) 진도- 이정표

▶네 번째이다. 진도 안 해도 괜찮다. 매일같이 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봐라. 이진 뭐지 아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정표이다.

(5) 스케줄-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루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스케줄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해보라. 내 주위의 사람을 놓고 기도해보라. 간단하다.

▶이것만 계속 하는데 본론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 이 간단하고 작은 일인데 속에서 큰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하라고 안 했다. 이걸 하라. 여러분이 기도시간을 정말로 가지는데 그냥이 아니고 진짜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요셉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생각이 이어지는 게 기도이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왔느냐? 문제 속에서 나왔다. 나는 노예를 하고 있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고 최고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생겼다. 응답이 왔다.

▶이때도 말씀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감옥소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도 말씀증거를 붙잡았다. 그리고 요셉 머릿속에서는 감옥소에서도 그렇고 보디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왕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케줄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쉬운가? 이게 진도자의 시작이다. 진도자의 매일의 시작, 진도자의 모든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여러분은 응답을 다른 사

람의 백년 응답을 하루에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몇 명도 안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순서대로 안 한다. 이걸 아예 안 한다. 해도 순서를 바꾼다. 자꾸 욕심을 가지고 이상한 것 다 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깐 헛갈리는 것이다. 전도자는 응답 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도자는 꺾박 온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1번) 누린 것이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바람 같은 불같은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다. 그러면 이 증거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말씀을 붙잡는데 그러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응답이 나온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 저는 인격이 늘 전도를 생각하고 그런 인격이 아니다. 그런데 이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다. 늘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전도 될까 이 생각이 늘 난다. 그러니까 30년을 생각했더니 뭔가 길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정시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변하는지 모르게 전체 응답이 다 온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정시기도와 전도만 했는데 나머지는 사실 따라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전도만 생각했는데 일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사람에게 대한 스케줄도 다 떠올랐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축복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육신적인 축복은 굉장히 많이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육신적인 축복도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받았다.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작년에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낄 일이 없다. 더 잘 보이는데 뭐하려고 끼는가? 이게 굉장히 글이 작은 성경이다. 그런데 이게 다 보이는데 굳이 낄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운동 하면서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게 성취가 된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뭐가 오는가? 여유가 온다. 겁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는가? 결과를 알게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겁낼 게 뭐가 있겠는가? 여유란 말은 이 시간표틀(2-3번)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새가족에게도 꼭 가르쳐줘야 된다. 램넌트에게도 꼭 가르쳐줘야 된다. 이 타임을 맞춰가는 게 여유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백년 한 것보다 한해에 응답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두 개를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온다. 그 방법이 뭐가? 이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꼭 안 일어나도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를 보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오늘 이 말씀에 답을 새로 내시기 바란다. 우리 옆의 사람을 축복하자.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틀림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예원교회 핵심 장소에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   |  |
|---|--|
| <b>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b>  |  |
| ① <a href="http://www.jcking.net">http://www.jcking.net</a> ② <a href="http://data.darak.net">http://data.darak.net</a> |  |
|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  |
|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  |
|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  |